

“밀라노 출장 의혹 특감위 재조사를”

전북 시민·교원단체 “자체감사로는 의혹 해소 부족”… 특별감찰위 통한 전면 조사·제도개선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전호성 교육감에게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를 종결했다”며

“현재 진행된 출장비 환수 조치만으로는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시간 미소명 의혹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뒤 재심 절차를 이유로 처분 내용과 수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 집행의 적절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새롭게 출범한 전호성 교육감 체제에서 공약한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최우선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식 출장 인원과 티켓 구매 인원 간 차이,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 관람의 실제 이용자, 2025년과 2028년 예산을 활용한 집행 경위 등을 특별감찰위원회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와 연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비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논란 이후 공

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육감은 자체감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보 시절 약속한 특별감찰 체계를 가동해 밀라노 출장 의혹을 재조사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행정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강진혁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선정



전북대학교 유
기소재섬유공학과
강진혁 대학원생(석·박사통합과정)이 과학 기술 분야 최고 권위 장학사업으로 꼽히는 2026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강진혁 대학원생은 남창우 교수 연구실에서 태양열 기반 친환경 담수화 기술 등을 연구하며, 지속가능한 첨단 소재 분야의 미래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남 교수 연구실은 지난해 광영우 대학원생(석·박사통합과정)과 최영민 대학원생(석사과정)에 이어 올해 강진혁 대학원생까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를 배출하며, 단일 연구실 차원에서 2년 연속 국가 최고 권위 장학금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국가장학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년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위원 실전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이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실전형 모의심의 연수를 실시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13일 본관 3층에서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차 모의심의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반영해 심의위원들의 시간 처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상 사례를 활용한 분석과 실제 심의 과정을 재현한 분임별 모의심의를 중심으로 진행해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의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연수에는 군산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2명이 참석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신현식 장학사가 ‘학교폭력 사례와 심의 결과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분임별 모의심의도 함께 지도했다.

이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징의 긴급조치 등 주요 법령을 설명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대학교는 지난 10일 오후 3시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전북 도내 전문대학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전북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원교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도내 전문대학과 ‘서울대 10개’ 협력한다

전북대, 전주비전대 등 전북 전문대학총장협 회원교 6곳과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북지역 전문대학과 함께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발맞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전북 도내 전문대학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전북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원교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군장대학교 이진숙 총장, 전북과학대학교 김상희 총장, 군산간호대학교 김영화 부총장, 전주가톨릭대학교 조덕현 부총장, 백제예술대학교 김

성원 산학협력단 팀장 등 전북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 소속 6개 회원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따라 전북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문대학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대학들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 공유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앵커 역할을 할 5국 3특 공유대학’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전문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가 거점국립대학으로써 전북지역 전문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실질적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대학 간 경계를 넘어 공동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확대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중학생들, 전북 항일운동 역사 현장 탐방

국외 역사문화 탐방 앞두고 삼례 등에서 사전교육… 수탈과 저항의 역사 직접 체험

전주지역 중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수탈과 항일 저항의 역사가 남아 있는 전북 곳곳을 찾아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11일 삼례·임피·군산 일원에서 2026년 청소년 국외 역사문화 탐방단’ 제3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길 위에서 만나는 우리 역사,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8월 중국 역사문화 탐방에 앞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과 항일운동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71명과 인솔단 9명 등 모두 8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3개 조로 나뉘어 군산내항 뜰다리부두와 옛 조선은행, 옛 군산세관, 임피역과 임피중학교, 춘포역, 삼례문화예술촌, 만경강 철교, 옛 전주역터인 태평문화공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근대 철도유산과 일제 수탈의 현장을 탐방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삼례·임피·군산 일원에서 2026년 청소년 국외 역사문화 탐방단’ 제3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가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건설한 철도의 역사와 지역민들의 항일 저항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학생들은 군산내항 뜰다리부두에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쌀이 일본으로 반출됐던 수탈의 역사를 확인하고, 만경강 철교와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일본인 지주회사의 미국 수탈 실태를 살펴봤다. 이어 1927년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전개된 옥구농민항쟁의 현장인 임피역 일대를 탐방하며 농민들의 저항과 독립운동 정신을 배

우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모뎀별 스피드 퀴즈와 현장 인증 활동 등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탐방 내용을 정리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발대식과 전주의 3·1운동 길 탐방에 이어 이번 역사 현장 탐방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 1일 안전교육과 최종 사전교육을 거쳐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국외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책으로 소통하고 삶을 잇다

14~16일 전주대서 ‘전북학생 인문학 대축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문화 향유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6 전북학생 인문학 대축제’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리사이틀홀과 강의실 등에서 2026 전북학생 인문학 대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관심, 서로!!(書:路)를 잇다’를 주제로 내걸었다. 책을 매개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연결과 연대의 인문학적 가치를 담았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첫날인 14일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김소작가를 초청해 ‘거룩한 밤, 우리가 서로의 온기가 될 때’를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한다. 이어 작품과 연계한 비경쟁식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5일에는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스파클’의 최현진

작가와 함께 ‘내 안의 스파클 너를 향해 반짝일 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책 대화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 속에서 만나는 나, 성장 인문학’ 북콘서트가 열린다. 낭독극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조우리 작가의 4X4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다섯 글자 책 소금 나누기’와 등장인물과 자신의 삶을 연결해 보는 월드카페 활동도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책 읽기와 삶을 연결하는 다양한 인문학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책 속 숨겨둔 RBTI를 찾아서’, ‘블라인드 북 테이스팅’, ‘향기 조향소’, 마음과 사는 문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인문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삶의 교양과 지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올해 장학생 1259명에 5억원 지원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학업 우수·보듬·재능 우수 3개 분야 선발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생 1,259명에게 총 5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응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의 2026년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1,259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장학생은 학업우수, 보듬, 재능우수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학업우수 장학생은 학업 성취도와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보듬 장학생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을 지원한다.

재능우수 장학생은 전국 및 광역단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학생들의 재능 계발과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각급 학교의 추천과 신청을 받은 뒤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장학사업이 학업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랑의장학회 이사장인 유정기 부교육감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 모두에게 든든한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자녀교육부터 가족여행까지 AI 실습

전북교육청, 학부모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정 운영

AI보다 슬기로운 가족여행 등 구성… 2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자녀교육과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걸)는 ‘월간 학부모 아카데미 AX(AI Transformation·AI 전환)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AX 심화과정은 지난 5~6월 진행한 월간 학부모 아카데미의 자녀심리, 경제·금융, 진로·진학, AI 활용 교육을 한층 확대해 문화예술과 가족여행, 자녀 진로·진학, 일상생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보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AI로 문화 감수성 열기 △AI보다 슬기로운 가족여행 △자녀미래 AI(진로·진학) △학부모 AI 비서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자녀미래 AI와 학부모 AI 비서는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각 2회 과정으

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월 2회씩 모두 6회에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20일까지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의 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걸 학부모지원센터장은 “생성형 AI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자녀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